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7,

요한복음 15:1-16:15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이 David Turner 박사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7회기 고별 담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세상에 증거함입니다. 요한복음 15:1-16:15.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담을 공부해왔고, 지금까지 13장과 14장을 살펴보며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그들과 떨어져 계시더라도 그 사실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 서로 겸손히 종이 되라고 모범을 보이신 후, 14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자신의 임재를 변화시킬 오실 영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과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 알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남겨두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경이 나오기 전, 심지어 정경인 신약성서도 출판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성경 속에서 보내는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일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사도 그룹과 함께 움직이셨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시는 데 실제로 관여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장을 살펴본 후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고별 담화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편이에요. 14장은 예수께서 질문에 답하시고 그 질문에 기초하여 방향을 바꾸시는 내용과 다소 대화적이었습니다. 15장은 제자들의 방해나 방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자신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영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영은 그들의 교사가 되어 그들과 함께 계속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단지 앉아서 이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 위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들의 일은 남아있거나 머무른다고 불린다. 그리고 물론 여기 15장에는 선한 목자 예수의 10장에서 본 것과 같은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문의 서술적 흐름을 살펴보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장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더 잘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서사적 흐름, 즉 비유적 담론을 봅니다. 나는 여기서 그것을 우화라고 부릅니다.

나는 우리가 비유라고 부르는 것과 우화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기술적인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둘 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을 넘어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확장하는 확장된 유추, 확장된 직유, 확장된 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부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는 농부의 인도에 응하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태워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뒤로 하고 돌아가는 15장 9-17절에서 새계명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따라서 15:9-17에는 사랑의 명령을 반복하고 맥락화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주어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온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15:9-17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비유를 읽을 때 갖게 될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9-17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런 의미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재하시는 동안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 머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거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신 후, 예수님께서 18-25절에서 세상 미움에 관해 매우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개인적으로 당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주의와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비추어 당신은 더욱 내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찰도 받고 반대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은 성령께서 제자들의 곁에서 오셔서 이 반대의 시기에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더욱 효과적인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15장 26절과 27절에서 성령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기독교 증언에 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며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도우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15장 끝에서 성령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이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16장이 반대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지, 성령께서 제자들이 반대를 다룰 수 있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5:18부터 25절까지 핍박과 어려움에 관해 앞뒤로 번갈아 가며, 그런 다음 제자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분으로서 성령을 언급하고, 그런 다음 세상의 증오와 어려움에 대해 이미 말한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본 후 본문은 반대의 현실과 우리가 받는 반대를 처리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얻는 유익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신에 대해 말하는 본문이 됩니다. 지옥의 모든 세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전히 하늘의 모든 세력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해석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는 먼저 성경에서 포도원의 역할과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 걸쳐 포도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과 그들에 대한 언약적 사랑으로 묘사될 때, 불행하게도 항상 풍성한 포도 수확을 거두지는 못하는 시대입니다. 결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스라엘이 맺어야 했던 모든 미덕과 모든 열매를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도 예수께서 나 자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에 대한 운명, 열매, 특성, 축복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 사용하신 약간의 기업 성격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나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의 가지인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구약성서의 몇몇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노아가 포도원지기가 된 창세기 9장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좀 과하게 삼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라의 나머지 부분에는 포도주에 관한 다른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포도주는 사람들의 삶과 정상적인 농업주기의 일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수확하고 무화과를 수확하고 이 모든 것을 수확하는 것처럼 포도도 수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를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를 포도주로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포도주를 가져다가 가죽 부대에 넣었고, 자연적으로 발효되어 무알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음료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물과 섞어 마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와 물의 혼합에 대해 말하는 많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문자 그대로 진노의 잔에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섞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두 개의 본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야만적인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오직 야만인만이 그런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물과 섞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분노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그리고 아마도 신약에서 중요해지는 중심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포도원의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5-1,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의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안에 망대를 세웠으며 포도주 틀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느니라.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사람이 험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농장과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풍작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한여름에 시골로 차를 몰고 가서 원하면 밭이 익어 수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농작물로 인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2절 중반까지는 아름다운 이미지인데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절 중반에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으나 나쁜 열매만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사랑하는 분께서 포도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후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풍작이겠지만 기대한 것을 얻지는 못합니다. 같은 종류의 일을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빛을 보내신 후에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로 오셨고, 두 팔을 벌려 그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한 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3절에서 그 이야기를 적용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유다 백성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한 것보다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를 찾았더니 왜 나쁜 포도만 맺혔느냐? 이제 나는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정의에 대한 호소가 있고, 그런 다음 이와 같은 포도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에게 이르리라(5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없애리라. 내가 그 성벽을 헐어 짓밟게 하리라.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는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은 그것을 넣고 모든 이미지와 우화와 세부사항을 취하여 그것을 명제적 진술로 바꿉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라 그들이 공의를 바라나 공의를 위하여 피흘림을 보며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되지 않은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모든 언약의 사랑과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언약의 말씀과 그들의 생명을 향한 그의 뜻과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 것도 없게 되었느니라 그에게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앗수르에게 심판하시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하신 구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과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애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는가를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예정이셨나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판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텍스트에 나오는 포도원 이미지는 매우 슬픈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이 본문을 따라갈 수 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의 기근, 즉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은 또한 그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고 농산물이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포도원 이미지는 이 본문에서 심판의 이미지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축복의 이미지로도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다시 풍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가 많고 포도주가 많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새 포도주가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시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친절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이르게 되면 신약성서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를 포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포도원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주인에게 열매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소작인의 비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면서 말씀하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분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다른 많은 공관적 유사점, 즉 마태복음의 본문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다른 많은 본문에서 포도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으로 반응할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들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농작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포도주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와인 남용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는 본문에 대해 듣지도 않았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성서, 특히 잠언에는 포도주의 오용을 경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같은 본문은 우리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충만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의 도덕적 의미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신 비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주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그다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의 세계와 현대 세계의 포도원에 대한 배경 간증은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가장 열매가 많은 포도원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나사렛 근처의 세포리스에는 꽤 많은 고고학적 유적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세포리스의 바닥 모자이크에서 포도원의 풍성한 포도 수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포도주 틀이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가져와서 돌을 깎아 만든 통에 쏟아 붓고, 보통 사람들이 그 위로 걸어가거나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어떤 종류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힐 것입니다. 그리고 와인은 액체가 짜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설치의 이 부분일 것입니다. 액체는 균열을 통해 아래로 흐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원래 이 벽을 통과하여 통으로 들어간 판자 전체였을 것이고, 그런 다음 통에서 가죽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것을 좀 더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포도가 어디에 버려졌는지, 어디에 부서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액체는 분명히 여기의 함몰된 곳으로 흘러갔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액체가 수집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헤퍼 밸리(Hefer Valley)에서 이 사진은 텔아비브(Tel Aviv)와 하이파(Haifa) 사이의 해안 근처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골란에서는 오늘날에도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가 포도를 어디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도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농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시간에 살고 있고 여기 미시간에서는 와인이 큰 사업입니다.

미시간 북부의 일부 아름다운 지역, 특히 포도가 재배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미시간 주 트래버스 시티 북쪽의 미션 반도에 있는 샤토 그랑 트래버스이며, 웨스트 트래버스 베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도의 클로즈업입니다.

새들이 포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고 농작물에 포도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은 Chateau Chantal인데, 전경에서 포도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조각품인 금속 조각품으로 기념했습니다. 물론 본문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술가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예수를 중심으로 포도나무 위에 사도들을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합산해보니 12개 이상인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내 생각에는 거기에 12개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12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든, 아니면 12 빼기 1이 11이 될 뿐만 아니라 맛디아도 있고 바울도 있으니 그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13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지가 꽤 흥미롭습니다. 내 생각에 이 책에서 우리가 책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실제로 Ego eimi he ampelos, I am the vine이 있는 그리스어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Ego eimi he ampelos he alethine, 진짜 포도나무. 그러나 내 생각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은 죽음과 피흘림을 통해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생명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은 원래 출판된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접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인간성의 본성과 심지어 인간인 기독교인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쨌든 15장과 6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탄 가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엄청난 양의 추측과 토론, 해석과 논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떠난 유다가 있는 직접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가와 같은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서 찍혀 타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 중에는 진짜 기독교인도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도는 끔찍한 일이며 결코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품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추종자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과거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적 역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빈주의 경향을 지닌 사람들은 선택의 교리와 그리스도께 나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분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인지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양을 아시므로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최근에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저는 그 교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나의 개인적 신학적 배경과 믿음은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인내의 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비추어 이와 같은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정한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행동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견지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영원한 안전의 교리를 고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영원한 안전의 교리는 사실상 도덕률 폐기론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주의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구원받는다 고 확신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든 안 하든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앗아갑니다. 나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교회의 역사적인 가르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교는 가장 심각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지 피상적인 신앙고백만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신자인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참으로 포도나무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애지중지하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비록 육신적인 기독교인이더라도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목회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공을 그들의 코트에 놓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계.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이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인간의 기준을 설정하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것에 기초하여 선언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고, 아버지가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돌보고 있으며,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적 비유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문제입니다. 가시나무와 가시덤불을 들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달래며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괜찮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구약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과 그들에게 닥친 모든 일로 인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보여 주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구원받았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그네스 데이(Agnes Day)에서 양이 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무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 더 이상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만화를 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양이 "네가 그 사람 손에서 뛰쳐나가는 것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잡아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과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희석하여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 관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께서 여기 2, 4, 5, 8절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는 새로운 개종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가 말하는 열매, 즉 새로운 개종자들의 의미에서 복음의 열매입니까? 내 생각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밭에 관해 말씀하실 때 영혼의 추수를 배경으로 하는 비슷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요.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에서 때때로 새로운 신자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즉, 토라 준수를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등등.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구원하고 복음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대답은 확고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이것저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즉 소위 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그분과 함께 하는 모든 일은 그분에게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주로 전도적인 용어로 생각하든, 성화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관점에서 생각하든, 나는 그것을 둘 중 하나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과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에 의존하는 정도까지만 올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것은

열매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약간 어리석은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용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무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체크리스트로 바꾸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착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포도나무와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가 내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식물이 열매를 맺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 새 생명을 주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섬기는 일에서 열매를 맺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분명히 가지와 포도나무의 유기적인 연합은 우리에게 영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우리는 단지 영을 통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 자신의 일, 단지 활동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활동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포도나무와의 연결과 포도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체 입장은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비추어 사랑의 계명에 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다음의 상황적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을 때, 그것은 순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무관심하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 실제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문화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계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순종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랑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의 신학에서는 뒷받침될 수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거나 거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이해한다면,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분출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예수께서 범사에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본을 따라 범사에 순종하고 따르며 그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더욱 온전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의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일을 말하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에 의지하는 것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머물거나 거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믿음 안에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이 장에서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요한 신학의 마지막 핵심 주제는 사랑과 순종의 연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이 아닌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점을 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박해가 전혀 가치 없는 증오라는 매우 엄숙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행한 일이나 그분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증오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오는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의 현실, 돕는 자의 사역은 세상이 전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박해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강조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이 프로그램할 수 없는 바람처럼 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위 생명의 떡이라는 담화에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박해의 시기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여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지막으로 단순히 가지가 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경작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께 의존하고, 성령에 의존하고, 그분의 모든 계획과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을 통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이미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단순히 가지들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뿌리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 받은 생명과 연결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가 단지 가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David Turner 박사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7회기 고별 담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세상에 증거함입니다. 요한복음 15:1-16:15.